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문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정에서의 어머니-유아간
책 읽기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지 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유아간
책 읽기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이 문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지 은

인 준 서

이지은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글의 유무와 책의 친숙도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어 어머니와 유아의 바람직한 책 읽기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가정에서의 읽기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글의 유무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책의 친숙도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W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4세 유아 4명(남아: 2명, 여아: 2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24회의 참여관찰과 어머니와의 형식적 면담 2회, 그밖에 비형식적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을 위해 참여관찰일지, 면담기록, 비디오 전사본, 각종 문서자료 등을 분류, 조직,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글의 유무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글이 없는 그림책에서는 책 속의 그림에 대해 설명유도하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추론하여 이야기 구성하기,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기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유아에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갔고 유아는 그림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감정상태를 추론하여 이야기를 구성해나갔으며 또한 유아는 그림의 사건이나 소재를 매개로 자유롭게 상상을 확장해나가는 상호작용이 나

타났다.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글이 있는 그림책에서는 책의 줄거리 예측해보기, 유아의 경험과 관련짓기,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로 나타났다. 유아는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에 대해 예측하고 궁금해 하였으며 어머니는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 회상을 격려하고 그림책 속의 주인공 및 등장인물과 유아의 경험을 연결시키도록 유도하였으며 또한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2.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책의 친숙도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책에서는 책의 외형적인 요소에 관심보이기, 어휘에 관한 질문하기, 흥미있는 요소에만 반응하기, 경험과 관련지어 흥미유도하기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유아에게 새로운 책을 보여주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요소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들은 유아가 책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책 속의 어휘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유아는 새로운 책에 흥미있는 요소가 있어야 관심을 보였으며 어머니는 유아가 책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들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책에 흥미를 가지게 도와주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친숙한 책에서는 유아 스스로 책 읽기 시도하기, 글자에 관심보이기, 유아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책의 내용 연관시키기, 유아가 책의 줄거리 이야기하기로 나타났다. 유아는 친숙한 책을 읽을 때는 글을 스스로 읽어보거나 글자에 관심을 보였으며 유아 스스로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켜 보는 확장된 책 읽기가 가능하였고 여러 번 같은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파악한 유아가 어머니에게 책의 줄거리를 이야기해주는 등의 유아 주도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자	5
II. 이론적 배경	8
1. 유아와 그림책	8
1) 글 없는 그림책	9
2) 글이 있는 그림책	10
2. 책 읽어주기 활동의 가치	12
3. 어머니와 유아의 책 읽기 상호작용	14
III.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도구	19
3. 연구절차	21
4. 자료분석	22
IV. 결과 및 해석	
1. 글이 없는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의 유형	24
1) 책 속의 그림에 대해 설명요구하기	24
2) 유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추론하여 이야기 구성하기.....	28
3)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기	34

2. 글이 있는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의 유형	36
1) 책의 줄거리 얘기해보기	37
2) 유아의 경험과 관련짓기	39
3)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42
3. 새로운 책 읽기 상황에서의 책 읽기 상호작용의 유형	46
1) 책의 외형적인 요소에 반응하기	47
2) 어휘에 관한 질문하기	49
3) 흥미있는 요소에만 반응하기	53
4) 경험과 관련지어 흥미유도하기	55
4. 친숙한 책 읽기 상황에서의 책 읽기 상호작용의 유형	58
1) 유아 스스로 책 읽기 시도하기	59
2) 글자에 관심보이기	62
3) 유아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책의 내용 연관시키기	64
4) 유아가 책의 줄거리 이야기하기	67
V. 논의 및 결론	71
1. 논의 및 결론	71
2. 제언	7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선정된 책의 목록	20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머니는 유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이다. 출생 직후부터 유아는 어머니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달해 나간다.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일상생활, 놀이 과정, 갈등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중에서 특히 책 읽어주기는 어머니와 유아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교육적으로도 가치 있는 활동이다. 다른 상황에서보다도 책 읽어주기 활동에서 어머니는 유아에게 언어적 자극을 많이 하고, 보다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는 등 언어발달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now & Ninio, 1986). 이처럼 책 읽기 활동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 더 다양한 어휘를 접할 수 있게 하고, 대화를 통해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그림책을 함께 읽는 동안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은 유아의 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고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풍부하게 한다.

현대 교육학자들은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읽기와 쓰기 지도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은 물론, 유아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유아에게 성인이 여러 종류의 그림책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그에 반응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강은진, 1998, Cullinan & Galda, 1994; Sutherland & Arbuthnot, 1991).

Teale(1992)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유아의 초기 읽기 활동의 중재자로서 참여할 때 유아의 문해 능력이 더 잘 발달한다고 하면서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유아의 읽기 능력의 발달은 유아가 단순히 문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안내와 도움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책 읽기 활동은 성인과 유아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책 읽어주기와 유아의 언어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보다 미시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Dickinson, 1994). 이는 책 읽어주는 빈도나 양보다는 책 읽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발달을 보다 잘 예측해 준다는데 기인한다 (Krayenoord & Paris, 1996). 즉, 유아를 수동적인 독자가 아닌 책 읽기에 능동적인 독자로서 책 읽기에 참여시킬 때 책 읽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Whitehurst(1998)는 책 읽기 활동을 할 때 어머니에게 개방적인 질문과 적절한 피드백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했을 때, 유아의 참여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유아의 발달을 돕는 질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 전략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는 연구자들이 어머니와 유아의 그림책 함께 읽기 활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now(1983)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유아에게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되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게 함으로써 공통되는 경험을 만드는 것, 유아가 제시한 주제를 계속 유지해 주면서 새로운 정보를 첨가시켜 주는 것, 유아의 능력을 파악한 후 학습을 안내하고 유아가 조금 더 발달된 수준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하였다. Hoff-Ginsberg(1991)는 유아를 능동적인 학습자로 인정해주고, 유아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유아의 자발적인 발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여러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책 읽기 활동에서의 질적인 상호작용은 비계설정이 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을 하고,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유아의 발화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영아간 책 읽기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해 행동의 기초가 되는 영아기 단계에서 영아의 문해발달과 관련해 어머니와 영아의 책 읽기 상호작용이 주로 다루어져왔다(김금주, 2000; 이영자, 이종숙, 1996; 최유진, 1999; Pellegrini et al., 1985). 어머니와 만 3세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부분 문해 발달과 관련하여 유아의 읽기 능력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서 책 읽기를 통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곽아정, 1994; 이차숙, 1992; 조미송, 1992).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임혜련, 2006)이나 또래 유

아간의 상호작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도 이루어졌다(김명진, 2002). 가정에서의 유아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아의 연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재순, 2003). 그림책의 종류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강은진, 1996; 신현숙, 2000)가 있으나 책의 종류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간 상호작용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하더라도 상호작용의 분석범주에 따른 발화와 빈도수의 차이에 따른 결과만을 보고하고 있다(채유진, 1998; 김재순, 2003). 하지만 양적으로 다루어진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실제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의 유무와 책의 친숙도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어 어머니와 유아의 바람직한 책 읽기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가정에서의 읽기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글의 유무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책의 친숙도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연구자

나는 한 아이의 엄마이다. 매일 아이가 잠들기 전에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것이 나의 하루 일과 중의 하나이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습관처럼 되어버린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은 아이 뿐 아니라 나에게도 소중한 시간이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의 표정이다. 아이의 표정을 살피면 책의 내용에 대해 시시각각 변하는 아이의 얼굴이 참 재미있다. 그렇지만 아이의 생각이 자랄수록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아이와 함께 책의 이야기에 빠져 이야기를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아이의 반응에 가끔 놀라기도 하고 그런 아이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를 해 주어야 할지 몰라서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 때 마다 내 생각대로 아이에게 반응해주고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나서는 “이게 맞나?” “내가 책을 잘 읽어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이런 걱정을 가진 사람이나 뿐만은 아니다. 여러 책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읽어주는지, 어떤 책을 읽어줘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주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걱정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내 아이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만나서 아이와의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아이하고 책을 읽다가 책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을 안해요. 너무 답답해요.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에게 계속 자극을 주기 위해 새로운 책을 자주 사 주는 편이에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지, 책의 종류도 많아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 아이는 한글을 일찍 깨우쳤는데도 혼자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읽어 달라기만 할건지..스스로 입을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나요? 어떤 책을 사줘야 아이가 흥미 있어 할까요?”

“아이가 책에 대해 흥미를 느끼면 좋겠어요. 책을 읽어주다 보면 도통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어떻게 읽어줘야 저하고 책을 읽을 때나 혼자 읽을 때나 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나 역시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든다. 아이가 책을 흥미있게 대했으면 하는 바람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아이의 모습을 대할 때는 아이에게 책이 글을 읽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책이면 다 똑같고 새로운 책이면 다 좋아할 것 같은 아직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책과 싫어하는 책에 따른 흥미의 기준이 서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엄마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간 새로운 책에 아이는 “시시해!” “지루해!” 등으로 일관할 때도 많고 이야기가 단순하고 교육적이지 않아 아이에게 읽혀주고 싶지 않았던 책에 아이가 흥분하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아이의 흥미를 따라 주어야 하나,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전해주어야 하나...하고 늘 갈등을 하게 된다. 어떤 책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엄마도 모르는 일임을 알면서도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런 이유로 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책 읽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책 읽기 상호작용을 연구주제로 삼은 것은 지금 내가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많은 실증연구들이 어머니와 유아의 책 읽기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으나,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기술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가 그림책을 읽을 때 글의 유무나 책의 친숙도에 따라 어떻게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와 그림책

많은 유아들에게 그림책은 처음으로 접해보는 책일 것이다. 유아가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여러 가지 장난감과 마찬가지로 만지고 탐색하는 대상으로 가지고 놀지만 자라면서 유아들은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보기도 하면서 그림책을 통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유아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 하는 어머니의 행동에서 언어행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림책이란 매개를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형성해 간다.

김현희(1996)는 그림책은 유아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정서적인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유아의 정서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유아가 책으로서 예술적 감흥을 경험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줌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에 유대감을 쌓을 수 있고, 언어를 체득하게 하며 문장의 의미와 이야기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여 유아와 함께 읽고 책을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책은 유아가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문학이므로 즐거움과 기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잘 쓰여지고 완성도가 뛰어난 그림책이라 할지라도 유아의 발달단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유아에게 읽혀지는 책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김현희, 박상희, 1999). 또한 유아들은 책의 그림에 정보와 행위가 담겨져 글의 내용이 그림에 반영된 책에 매력을 느끼며 자신이 들은 것과 그림을 연결지으려 한다. 즉, 단순하면서도 예상 가능한 그림책이 유아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오진희, 2000). 이러한 그림책 중에서 본 연구에 관계되어있는 글이 없는 그림책과 글이 있는 그림책(이하 이야기 그림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글 없는 그림책

글 없는 그림책이란 글이 없이 그림만으로 이야기가 구성된 책을 말한다(McGee & Richgel, 1992). 이러한 책은 삽화에 의존하여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데 특히 일련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삽화를 보고 유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말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문해자인 유아들에게 적합하다(Janlongo, 1992). 이처럼 글 없는 그림책은 대체로 글을 모르는 유아가 읽기에 적절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이 어린 유아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어떤 글 없는 그림책은 매우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나이 든 독자에게 적절한 것도 있다(이 경우·장영희·이차숙·노영희·현은자, 1997).

글 없는 그림책은 유아들의 구어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유아들은 인쇄된 활자로 인해 이야기 구성에 방해받거나 제한 받을 염려가 없다(D'angelo, 1981). 따라서 유아는 그림만으로 이야기 세계를 만들며 시각적 언어를 충분히 활용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림은 독자적인 형태의 시각언어로서 자립하였으며 내용을 의미하는 새로운 표현수단이 되었다(신명호, 1994).

그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글을 읽는 과정보다 선행되어지고 언어발달에 있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Burn & Row, 1976). Morrow도 그의 연구에서 유아들이 최초의 책 읽기 활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 주로 삽화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유아는 글자보다 그림을 인식하는 능력이 훨씬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의 의미보다는 그림의 의미에 더 쉽게 접근한다(임원신, 1994).

글 없는 그림책의 장점은 독자가 그림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완성시킴으로써 읽는 모든 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Caroff & Moje, 1993). 기본적인 단어와 구어 기술을 가지고 그림을 해석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되면 읽기와 인쇄물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배양된다(D'angelo, 1981).

Fagerlie(1975)는 유아들은 글보다 그림 보기를 즐겨하며 각 그림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글 없는 그림책은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자극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글 없는 그림책은 활자로 인해 유아가 이야기 구성에 제한받지 않고 그림의 의미를 통해 이야기 구성을 쉽게 하도록 돕는 장점이 있으며 유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반응할 수 있게 여유를 주기 때문에 창의적, 인지적 수단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2) 글이 있는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은 공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생활경험을 흥미롭게 엮은 것으로 실제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환상성을 가미하기도 한 줄거리가 있는 그림책이다(홍채린, 1996)

이야기 그림책은 활자와 그림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책으로 내용은 등장인물의 갈등과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의 구조는 발단, 전개, 위기나 절정, 결말이라는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로 나타난다.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등장인물의 배경의 전달을 위해 직유나 은유, 운율같은 문학적 요소와 예술적 형태를 띤 그림을 사용한다(Torr & Clugston, 1999). 즉, 이야기 그림책에서의 글과 그림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삶과 사건, 그리고 그것의 해결과정을 만나게 하고 그 속에서 유아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이야기 그림책은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내용을 질적으로 우수한 문학과 예술성을 담아내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그림책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이야기 구조를 가진 글로 그려내는 문학적 특징을 지닌다. Burke(1990)는 유아의 특성을 활동적이며 호기심 많고 실험적이며 자기 중심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모방적이라고 하였다. 이야기 그림책은 유아들이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이야기 속에서 펼쳐보게 한다. 또한 이야기의 줄거리는 명석하고 간결하며 소박하고 아름다운 글로 표현된다. 이러한 아름답고 세련된 언어를 경험함으로써 유아는 뛰어난 언어감각을 가지게 되고 풍부한 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이상금, 1998).

둘째, 이야기 그림책의 그림은 본문을 전달하며 정서적으로 아름답고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예술적 특징을 지닌다. 글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림책의 내용, 주제, 세부적인 면을 전달한다. 인물의 동작과 움직이는 인물이 처한 공간과 시간의 세계가 그림을 통해 충분히 형상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야기 그림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이 경우 외, 1997).

셋째, 이야기 그림책은 교육적 특성을 지닌다. 이야기그림책은 유아가 삶과 사물

을 바라보는 눈을 풍부하게 하고 넓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야기그림책은 주제가 가치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용이 유아의 수준과 발달에 적합해야 함은 물론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것이어야 한다(이 경우 외, 1997).

이와 같이 이야기 그림책은 유아의 생활경험과 관련된 주제, 등장인물들의 성격 묘사, 배경의 전달을 위해 유아에게 적합한 이야기 구조가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학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책을 말한다.

2. 책 읽어주기 활동의 가치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형식적인 교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수없이 일어난다(이연섭, 강문희, 1986). 그 중에서 책 읽어주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어머니와 유아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이다(이상금, 1990). 또한 함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유아간의 친밀감이 커지고, 정서적 유대가 돈독해진다(이상금, 1990).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과정은 단순히 책에 있는 단어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유아간에 감정적 교류를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둘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Dickinson, 1994). 따라서 책을 읽어줄 때의 부모 자녀간의 애정적인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Bergin, 2001).

책 읽어주기 활동은 언어 발달의 민감기에 있는 유아에게 가치있는 활동이다. 책 읽어주기 활동의 가치를 언어발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탈맥락화, 어휘 발달, 읽기 쓰기의 문해 발달로 이야기할 수 있다(윤혜경, 1998). 우선, 탈맥락화란 ‘지금 여기’라는 직접적인 물리적 맥락을 떠나서 멀리 떨어지고 추상적인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탈맥락화는 책읽기 활동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맥락 내에서 책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행동과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와 유아의 세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그리고 이야기나 삽화로부터 참조와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은 책읽기 활동을 통해 발달되고, 유아의 문해 발달과 이후의 학교에서의 성공을 예언해 준다(Snow, 1983). Snow와 Ninio(1986)는 어머니와 함께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 경험이 유아들이 복잡하면서도 탈 맥락적인 언어들을 다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어휘 발달에 대해 살펴보면, 책 읽기 활동이 유아들의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은 매우 많다(김민정, 1995; Dickson & Smith, 1994, Senechal, et al., 1995). 김민정(1995)은 이야기책 듣기가 유아의 어휘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이야기책에서 듣지 않았던 단어보다 이야기책에서 들었던 단어의 어휘습득이 더 잘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 유아가 함께 하는 책 읽기 경험이 유아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는지를 연구한 Senechal과 그의 동료들(1995)은 책을 한번 그냥 읽어 주었을 때, 질문했을 때, 개작했을 때, 반복했을 때의 모든 상황에서 유아의 수용어휘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한편 책 읽기 동안 어떤 단어를 특별히 더 잘 학습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단어의 빈도, 삽화에서의 단어 묘사, 그리고 주변 맥락의 풍부함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Elley, 1989).

이처럼 부모-유아간 책읽기 활동에서 유아들의 어휘습득이 용이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째, 책은 유아들이 구어체에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많은 단어들을 포함하며,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이 유아들에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유아가 언어중심의 상황에서 성인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주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now, 1983). 예를 들면 책읽기 동안 성인의 정의하기, 수정하기, 설명하기 등이 유아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쉽게 습득하게 한다는 것이다(Heath, 1983; Ninio, 1980; Pellegrini, et al., 1990). 셋째, 같은 책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단어와 문맥의 반복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Ninio & Bruner, 1978; Snow & Goldfield, 1983; Snow & Ninio, 1986).

다음으로 문해 발달에 대해 살펴보면, 문해 (literacy)란 쓰여진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책을 읽어주는 것이 문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문헌을 통해 증명되었다(이차숙, 1992; 현은자, 1990; Bus & Van IJendoorn, 1998; Morrow, 1983).

Strickland와 Taylor(1989)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경험한 유아들이 책을 좋아하고 읽기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복잡한 이야기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배경지식이 풍부해지며 읽기 발달이 빠르다 하였다. Bruner(1983)도 영아가 일찍 책을 다루어 책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가지면 그림책의 약정을 일찍 학습하며, ‘그림보고 명명하기’와 같은 읽기 행동이 빨리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특

히 유아에게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 재미있는 이야기의 반복적 읽기가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기여한다고 하였다(Elley, 1989). 이처럼 어머니 유아간 책읽기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과 관련해 탈맥락화, 어휘 발달, 읽기 · 쓰기등의 문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있는 활동이다.

3. 어머니와 유아의 책 읽기 상호작용

어머니가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은 가정환경의 배경, 유아의 연령, 발달능력, 책의 종류와 친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Hoff-Ginsberg(1991)는 어머니와 유아의 책 읽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책 읽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가정마다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어떤 어머니는 유아에게 단순히 책을 읽어주었고 어떤 어머니는 유아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유아의 반응을 격려하기도 하면서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교환함을 알 수 있다. Dickinson과 그의 동료들(1992)은 저 소득층 어머니의 책 읽기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어머니는 유아에게 명명하고 묘사하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 상황을 예측하고 추리하거나 이유를 묻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Wells(1997)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부모보다 아동에게 많은 책을 제공하고 문해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의 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유형의 차이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김재순(2003)의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의 어머니와 유아가 전체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만 2세 유아의 어머니보다 만 4세 유아의 어머니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lzby(198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상호작용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어머니가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며 상호작용을 할 때 연령이 어린 유아에게는 그림으로 표현된 사물의 명칭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연령에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책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의 읽기능력에 따라서도 책 읽기 방법을 달리한다는 연구도 있다. 조정숙(1990)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유아와 읽지 못하는 유아의 부모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 글을 읽는 유아의 부모는 자녀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주는 방법으로 책 읽기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글을 읽지 못하는 부모는 단순히 읽어주기만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처음에는 책을 읽어주다가 점차 유아를 참여시키고 나중에는 혼자서 읽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이 유아의 발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유아의 문식성이 부모의 책 읽기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책의 종류와 친숙도를 살펴볼 수 있다. 홍혜경(1998)은 친숙한 책과 낯선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친숙한 책일 경우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유추하기, 연관짓기 등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났지만 낯선책일 경우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명명하기, 명료화하기, 설명하기 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Sulzby(1985)도 유아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반복하여 읽을 때 낯선 책보다 유아의 발화를 높이고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Goodsitt(1988)도 낯선 책에서는 유아들보다 어머니의 발화가 많고 설명하기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친숙한 책에서는 유아들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상호작용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친숙한 책에서는 설명하기가 줄어들고 유아의 경험과 연관된 탈 맥락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책에 따라 유아의 반응이 틀려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 유아의 연령, 유아의 문식성, 책의 친숙도에 따라 상호작용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W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4세 유아 4명(남아: 2명, 여아: 2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이다. 유아들의 어머니들은 모두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이다.

유아들은 만 3세부터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었으며, 남아, 여아 모두 완벽하진 않아도 한글로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어머니들과 함께 꾸준히 책을 읽어왔던 유아들이다.

유아들의 하루일과는 오전 10부터 3시까지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르며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과외를 하고 있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책 읽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엄마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은 저녁을 먹은 후에 취침 전으로 정해져있었다. 연구대상자 모두 책 읽기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상황 설정이 어렵지는 않았으며 연구대상자와의 절친한 관계로 자연스러운 상황이 가능했다.

성훈이네는 분당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여자동생이 한 명있다. 성훈이네 엄마는 성훈이가 어렸을 적부터 매일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책을 읽어주고 있으며 유아의 언어발달에 가장 필요한 건 책 읽기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이다. 성훈이는 네 살이 넘어서 부터는 책을 읽고 싶어서 잠자기를 꺼려해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때는 무척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유치원과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안타깝다고 한다.

상현이네 역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상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네 살부터 한국에서 자란 아이이며 연년생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다. 상현이네 엄마는 매우 활달하고 아이와의 스킨십이 남다른 엄마이다. 상현이 엄마는 상현이가 거주지를 자주 바꾸면서 성격이 소심해지고 언어적인 발달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책을 읽어줄 때 자주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속상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토로한다.

분당구에 사는 은진이는 터울이 큰 여자동생과 자매이다. 은진이는 조용하고 내

성적이며 동생을 잘 챙기는 언니이다. 은진이는 연구자의 딸과 단짝친구이므로 연구자와 은진이 엄마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며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이며 연구기간 외에도 절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유아기의 책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동생이 아직 어려서 은진이에게 하루에 한 권 책을 읽어주기도 힘들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분당구에 사는 가현이는 외동딸이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어릴적부터 모든 사랑과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온 아이이다. 가현이는 바르고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이며 또래에 비해 어른스럽다. 가현이 엄마는 육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나 가끔 자신의 지나친 간섭에 아이가 주눅 들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가현이는 어릴적부터 책을 좋아하고 자기 전에 엄마에게 꼭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현이 엄마는 지금은 일찍 한글을 깨우친 가현이가 왜 스스로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연구대상이 본 연구자와 충분한 래포(rapport)가 형성된 관계에 있는 터라 연구에 대하여 매우 협조적이었다. 면담시에도 진지하게 임했으며 유아들도 연구자를 자주 만났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서 본 연구자도 관찰에 임하는 동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관찰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때로는 수다의 형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점이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면담의 신뢰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본 연구자와의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인 어머니들과 유아들에 대한 선택은 자연스러운 상황과 솔직한 면담이 생명인 문화 기술적 연구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책의 글의 유무에 따라 어머니 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책의 친숙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유아의 책 읽기 활동에 사용된 책은 총 27권으로 글이 없는 그림책, 글이 있는 각 5권, 새로운 책 7권과 친숙한 책 10권씩이다. 글이

없는 그림책과 글이 있는 그림책은 최근에 출시된 그림책 중에서 김세희(2000)가 제시한 유아문학 작품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명이 책의 종류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선정하였다. 글이 없는 그림책과 글이 있는 그림책은 연구자가 각 연구대상에게 미리 제공해주어 관찰하기 전에 몇 번 읽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책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어머니들에게 유아가 처음 보는 책인지를 확인한 후에 관찰 때마다 가져갔으며, 친숙한 책은 유아가 집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여러 번 읽었거나 유난히 좋아하는 책으로 유아가 책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책이다.

<표 1> 선정된 책의 목록

책의 제목	저자	책의 종류	출판사
빨간 끈	마곳 블레어	글이 없는 그림책	케이유니버스(주)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리그즈	글이 없는 그림책	마루벌
이상한 화요일	데이비드 위즈너	글이 없는 그림책	비룡소
케이크 도둑	데칭 킹	글이 없는 그림책	거인
노란 우산	류재수	글이 없는 그림책	(주)보림출판사
얼마예요?	노영주	글이 있는 그림책	언어세상
꿈꾸는 작은 오리	A. H. 벤자민	글이 있는 그림책	아이빛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	글이 있는 그림책	재미마주
나랑 같이 놀자	마리 홀 에츠	글이 있는 그림책	네버랜드
씩씩한 마들린느	루드비히 베얼먼즈	글이 있는 그림책	시공주니어
안녕 뽀이뽀이 창문	노튼 저스터	새로운 책	뽀아제어린이
중요한 사실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새로운 책	주)보림출판사
하얀 눈 환한 눈	앨빈 트레셀트	새로운 책	비룡소
종이 봉지 공주	로버트 문치	새로운 책	비룡소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카도	새로운 책	고슴도치
나랑 좀 달라도 관찰아	캐스린 케이브	새로운 책	주니어김영사
행복한 사자	로저 뒤봐쟁	새로운 책	시공주니어
안돼, 데이빗	데이빗 새논	친숙한 책	지경사

안녕! 오스월드	단 야카리노	친숙한 책	캐릭터플랜
구름빵	백희나	친숙한 책	한솔수북
강아지똥	권정생	친숙한 책	길벗어린이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셸 누드슨	친숙한 책	웅진주니어
할머니가 남긴 선물	론 브룩스	친숙한 책	시공주니어
코를 킁킁	루스 크라우스	친숙한 책	비룡소
노란기차	프레드 베르나르	친숙한 책	보림
거인이 된 미미	제라르 몽콩블	친숙한 책	주)교원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친숙한 책	웅진주니어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사전에 대략적인 설명을 전화로 한 후 연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내용, 절차 등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 유아들과 친근감이 있었으나 처음 1주간은 유아들의 하루일과가 끝난 오후부터 취침 전까지 유아들의 집에서 머무르며 보다 나은 친근감을 형성하고 집에서의 책 읽기 활동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유심히 관찰하였다. 관찰 후에 책 읽는 시간은 연구대상자 모두 취침시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연구대상자들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그림책 읽기 상황을 관찰하였다. 연구기간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24회의 참여관찰과 어머니와의 형식적 면담 2회, 그 밖에 비형식적 면담으로 동안 이루어졌다.

관찰 초기에는 관찰한 내용을 필드노트에 간략히 기록하고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어머니와 유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유아의 책 읽기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연구자의 필드노트와 소형 녹음기만으로는 상호작용의 상황이나 유아들의 표정을 기록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장에 대해 보다 근접하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 어머니들의 동의를 얻어 5월 둘째 주부터는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자료 분석 시 해석을 재검토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상호작용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디오를 유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촬영하였다. 대개의 경우 관찰은 즉시 수첩에 기록하도록 하였고 중간 중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간단히 메모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어머니와 유아가 책을 읽을 때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모두 기록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그 다음에는 어머니와 유아의 대화의 빈도, 억양, 그리고 어머니의 의도와 전략, 의미를 가지는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관찰로 의미를 좁혀나갔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이란 연구자의 관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자가 발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한 전사본이나 다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에서 기술된 자료들은 해석의 과정을 거쳐 이해를 갖는다. 기술된 자료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일련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복잡한 의미들을 풀어보고 명료화하는 것(Denzin, 1989)으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가 진척되어감에 따라 본 연구자는 수집한 비디오를 전사하여 그 자료를 계속 읽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해석의 과정으로 들어갔고 자료를 범주화하고 주제에 대해 이해를 다듬는 일을 하였다. Taylor와 Bordon(1984)은 주제를 밝히고 수집된 자료에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료를 읽고 또 읽으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도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으면서 부호화하고 범주화 하였으며 분류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분석을 하였다. 그러면서 글쓰기를 시작하였으며 글 쓰는 동안에 드는 의문은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보충참여관찰과 면담을 추가하여서 자료를 확보하여 나갔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책의 글의 유무와 친숙도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어머니와 유아의 책 읽기 상호작용이 글이 없는 그림책과 글이 있는 그림책, 새로운 책과 자신에게 친숙한 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글이 없는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유형

어머니와 유아들이 글이 없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활자로 인해 이야기 구성에 제한받지 않고 그림의 의미를 통해 이야기의 구성하며 확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글이 없는 그림책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책 속의 그림에 대해 설명 요구하기, 유아 스스로 의미부여하고 이야기 구성하기, 상상의 이야기 꾸미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1) 책 속의 그림에 대해 설명유도하기

어머니와 유아는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보다는 그림속의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몸동작과 표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책 읽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에게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을 자주하면서 상호작용을 이끌어갔고 유아가 그림에 대해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어머니가 ‘눈사람 아저씨’ 라는 페이지마다 여러 개의 장면들로 구성된 그림책을 유아에게 그림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을 설명해보라고 유도하는 상호작용의 예이다.

엄마 : 겨울이 오면 뭐가 오지? 눈이 오지? 눈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성훈 : 눈사람을 만들 수 있지.
엄마 : 그렇지. 그럼 여기 책 속에 눈사람 아저씨는 뭘 하고 있을까?
성훈 : 어. 눈사람이 움직이네.
엄마 : 눈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성훈 : 여기 친구가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눈사람이 갑자기 움직여서 걸어 다니네.
엄마 : 우와- 신기하게 눈사람이 걸어 다니는구나.
여기서는 눈사람이 뭐하고 있지?
성훈 : 친구랑 운동을 하려나봐. 친구가 먼저 보드를 타니까
눈사람이 따라하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엄마 : 계속 울기만 해?
성훈 : 아니. 친구가 달래주니까 이번엔 공을 가지고 같이 논다.
재미있겠다.
엄마 : 와- 눈사람이 날아간다. 어디로 가는 걸까?
성훈 : (책장을 계속 넘기며)
와- 눈이 막 오는데 하늘을 날아가고 있네. 눈사람 아저씨랑
친구가 하늘위에서 반짝반짝 불빛들을 보고 있어. 멋지다. 그러다
가 땅으로 내려오는데....
엄마 : 그래서? 그다음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성훈 : 이제 헤어지려고 바이바이를 하네.
엄마 : (책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며) 여기서 눈사람 아저씨는 어떻게 됐
지?
성훈 : 녹아서 없어졌네.

〈눈사람아저씨, 관찰. 2007. 5. 30〉

성훈이와 엄마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들을 이야기하며 책을 읽어내려 갔다. 책에 그림을 설명해주는 글이 없기 때문에 책 속의 그림을 순서대로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눈사람은 뭘하고 있지?” “그 다음은 뭘하고 있는거지?” 라고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유아가 그림속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

인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음 사례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빨간 끈’이라는 빨간색 실타래가 서랍에서 나와 빨간끈이 되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장면으로 구성된 글이 없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책을 읽는 상황의 예이다.

엄마 : 은진아, 와- 이것 좀 보라. 여기 빨간 끈이 있네.

은진 : 빨간 끈? 그걸로 뭘 하고 있는데?

엄마 : 글썄, 은진이가 설명해볼까?

은진 : 애네들이 줄넘기를 하네.

엄마 : 그러네. 그 다음은 뭘 하고 있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

은진 : 응. 빨래를 널었어. 엄마, 으하하, 빨랫줄인줄 아나봐.

엄마 : 그 다음은?

은진 : 어? 이번엔 빨간 끈으로 서커스를 해요. 물개가 공을 가지고
줄타기를 하고.

(은진이가 책을 스스로 넘기면서)

은진 : 와- 바다 속이다.

엄마 : 바다 속? 바다 속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은진 : 여기 언니가 끈을 가지고 바다 속에 들어갔네. 수영을 못해서 가
지고 갔나?

엄마 : 와- 여기는 우주에도 빨간 끈을 가지고 갔구나.

우주에는 왜 가지고 갔을까?

은진 : 물론 지구를 잃어버릴까봐 그런 거지 (하며 웃는다)

엄마 : 끈이 있으면 지구를 잘 찾아 올수 있어?

은진 : 그럼요. 지구에 끈을 묶어 놓고 가면 다시 올수 있잖아.

엄마 : 우와- 진짜 좋은 방법이다.

어? 여기서도 빨간끈이 뭐하고 있는 걸까?

은진 : 빨간끈으로 새 동지를 만들었어.

엄마 :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며) 여기서는?

은진 : 빨간끈을 따라서 버스가 올라가네.

<빨간끈, 관찰. 2007. 5. 17>

은진이 엄마는 은진에게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책 읽기를 전개시켜 나갔다. 성훈이와 은진이 엄마 모두 글 없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여기서는?” “그 다음은?” “애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림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책 속의 장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 없는 그림책 읽기 활동 시 어머니들은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보다 유아 스스로 그림속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책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글 없는 그림책을 실제로 어떻게 읽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면담의 내용이다.

“글 없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저도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림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해요. 그래야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고. 아이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대답 잘해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연습도 되고.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니 지금은 자기가 더 재미있어 한다니깐요!

〈성훈이엄마 면담, 2007. 10. 15〉

“책에 글이 없으면 자꾸 그림에 대해 물어보게 되요. 당연하지요. 그림을 이해해야 책을 이해한거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림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똑같은 책이어도 읽을 때 마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아이의 표현력을 기르는데는 글 없는 그림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은진이엄마 면담, 2007. 9. 30〉

이렇게 글이 없는 책을 읽을 때 어머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읽게 하면서 유아의 표현력의 향상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추론하여 이야기 구성하기

글 없는 그림책은 줄거리와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감정이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주인공의 감정 상태를 추론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책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은 우산이 색색별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노란우산’이라는 책의 장면을 책의 그림을 보면서 유아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해가는 예이다.

가현 : 이 책은 글이 없네?

엄마 : 그렇네. 어찌지?

가현 : 음... (책장을 끝까지 넘겨본다)

가현 : 노란 우산이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이 또 걸어갑니다.

(크게 웃으면서) 또 빨간 우산이 걸어갑니다.

어? 또 초록색이 걸어갑니다.

엄마 : 와- 우산이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가현 : 히히. 우산들이 놀이터 갔다.

우산들이 놀이터로 갔습니다. 가서 미끄럼틀을 타려나봅니다.

재미있겠습니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엄마 : 가현아, 근데 우산이 걸어가는 걸아?

누가 우산을 쓰고 가는 거야?

가현 : 우산만 보이는데? 위에서 봐서 그런가봐.

우산이 이번에는 분수를 보러왔습니다.

와- 분홍이도 아니 분홍우산도 친구하러 왔습니다.

모두들 기차길을 건너가려는 데

기차가 지나가버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조심 건너세요! 위험해요!

엄마 : 모두들 어디가나 보네.

가현 : 네! 학교에 갑니다.

우산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네들이 공부하러 학교에 왔습니다. 참 착한 어린이들입니다.

모두 예쁜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왔습니다.

우산은 제자리를 잘 했을까요? (박수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가현이는 처음에는 “어, 글이 없네” 하고 의아해하다가 엄마에게 읽어달라는 요청 없이 책장을 넘기면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구성해나갔다. 글이 없기 때문에 가현이는 글을 읽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구성해가면서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우산이 색색별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책의 그림을 보며 “노란우산이 걸어갑니다...분홍우산도 친구하러 왔습니다...기차기 지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추론하여 이야기를 구성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어머니가 책의 그림을 설명하는 것을 위주로 책을 읽어나가고 유아는 스스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거나 감정 상태를 추론하면서 책을 읽는 경우이다.

엄마 : "와- 눈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네.

눈사람이 로봇같이 혼자 움직이네"

성훈 : "아니야. 눈사람은 가볍기 때문에 눈처럼 움직이는 거지.

눈사람아저씨가 성진이랑 부엌으로 가네? 부엌으로 간 아저씨가 성진에게 핫초코를 갖다주고 있네. 둘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걸 마시는거야.

엄마 : 이번에는 아저씨랑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간다. 자러 가나?

성훈 : "아니야. 밖에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것 같은데?"

엄마 : "그래 그렇구나. 어? 눈사람이 하늘로 날아가네. 어떻게 날아가지? 친구가 꿈을 꾸고 있나보다"

성훈 : "아니아니 그게 아니구. 눈사람은 가벼우니까 날수 있는거야 그래서 친구를 날게 해주고 싶었나봐. 나도 눈사람 아저씨 만나면 날 수 있을텐데.."

엄마: "성훈이는 눈사람 아저씨랑 어디가고 싶은데?"

성훈: "그냥 하늘 날면 재밌을 것 같아서"

성훈: "엄마, 눈사람 아저씨가 하늘 다 날고 집에 왔어. 이제 헤어진다.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을 것 같아.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 아 저

씨가 하늘을 날고 계속 돌아다녀서 너무 피곤해보여."

엄마: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친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성훈: "어? 엄마말대로 정말 꿈을 꾸는 걸까? 아니야. 분명히 하늘도 나르고 같이 음식도 먹었잖아. 아니야. 애가 정말 눈사람아저씨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했는데..."

〈눈사람아저씨, 관찰. 2007. 6. 30〉

성훈이는 엄마가 그림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을 듣다가 “아니야, 이런 걸꺼야!”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거야!”라고 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너무 피곤해보여” “애가 얼마나 반가워했는데...”하면서 등장인물에 대한 심리상태를 추론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상한 화요일’ 이라는 숲 속의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서 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려진 책을 가현이가 등장인물의 표정들을 살피면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론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의 예이다.

가현 : (어두운 느낌의 책의 표지를 보고) 무서운 얘기인거 같아...

엄마 : 그럴까? 책을 한번 펴보자.

(개구리가 깜깜한 밤에 하늘을 날고 있는 그림을 보고)

가현 : 개구리들이 어디로 여행을 가나?

개구리가 나뭇잎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네?

난 재미있을 것 같은데 개구리들은 화났나보다.

표정이 왜 이러지?

엄마 : 그러게. 하늘을 날아서 어디로 가는 걸까?

가현 : 이것봐. 어떤 집으로 들어간다. 집에 있던 아저씨 표정 봐.

갑자기 개구리들이 들어오니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엄마 : 개구리가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뭐하는 걸까?

가현 : 엄마, 이것봐요. 여기 할머니가 자는데 개구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텔레비전이 보고 싶어서 왔나? 할머니가 깨시면 안될텐데....

(긴장한 얼굴로) 할머니, 깨지 마세요..

(여러 마리의 개구리가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장면의 책을 보며)

가현 : 엄마, 개구리가 우리하고 친구하고 싶었던 건가봐. 개구리 사는 데는 심심하니까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본거지. 너무 심심해서 여
기 개구리 표정이 화났잖아.

<이상한 화요일, 관찰. 2007. 7. 5>

가현이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개구리가 화났나보다” “아저씨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우리하고 친구하고 싶었던 건가봐” 라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론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다음은 어머니가 글 없는 그림책에 읽어주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아이의 반응에 대한 면담의 내용이다.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는 주인공의 표정이나 행동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책을 읽어주는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표정 하나하나를 읽어내더라고요."

<성훈이엄마 면담, 2007. 10. 15>

"글이 없는 그림책을 대할 때 아이는 시각적인 요소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책의 그림을 설명해 나갈 때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바로 이야기해요"

<가현이 엄마 면담, 2007. 10. 21>

"책에 글이 없어서 그런지 어떨 땐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기도 해요. 그림만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신나서 이야기를 만드는걸 보면 글이 없어서 아이의 생각이 자유로울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창의성이 발달될 것 같기도 하고"

<은진이 엄마, 면담. 2007. 11. 2>

이렇게 유아는 그림책의 시각적인 요소에 반응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흥미

로워한다는 것과 그림을 유아 나름대로 해석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해가고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책 읽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기

글이 없는 그림책은 내용전개의 틀이 없기 때문에 그림 속 장면을 벗어나서 충분히 상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는 그림의 사건이나 소재를 매개로 책에 없는 그림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을 확장하여 떠나가고 있었으며 엄마는 유아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보조자적인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다음은 유아가 ‘케이크 도둑’이라는 책을 보며 그림 속 상황을 확장하여 이야기를 꾸미는 경우이다.

(그림속의 쥐를 가리키며)

성훈 : 엄마! 애 좀 봐. 바위에서 공을 놓쳤어. 퐁퐁퐁퐁퐁 툼러간다.

엄마 : 어, 툼러가서 여기 바다에 빠지겠다.

성훈 : 바다에 빠지면 어때? 공은 가벼우니까 퐁퐁 떠서 배가 될꺼야.

배가 되면 물고기들이 타려나? 하하하.

엄마 : 여기는 어린이가 새를 타고 가네.

성훈 : 우와. 좋겠다. 나도 데려가지. 애는 어디로 갈까? 음...여기 바다로 멀리 가나봐. 그럼 아까 공을 만나서 둘이 친구...아니아니 공이 배가 될꺼니까 애를 태워주겠다. 그러면 여행하고 배도 타고 애 는 진짜 좋겠다.

엄마 : 공이 바다로 가서 배가 된 것 같아? 그런 그림은 없는데?

성훈 : 아니아니. 그냥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여기있는 동물들이랑 놀고 싶어. 애네 봐. 엄청 재밌놀잖아. 숨박꼭질도 하고, 케이크도 먹고, 하하하. 애봐. 달리기 진짜 잘한다.

엄마! 내가 애네 만나면 운동회 할까봐. 나 달리기 엄청 잘하니까 아마 내가 이길걸. 내가 1등하고 2등은 누구할까? 애 원숭이로

하자. 엄마도 갈래?

〈케이크도둑, 관찰. 2007. 6. 30〉

성훈이는 책을 읽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에 나타난 상황들을 “공은 가벼워서 배가 될 거야” “공이 친구를 만나서 여행할 거야” “내가 애네 만나면 운동회 할까봐” 라고 그림의 상황을 나름대로 확장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은 유아가 그림속의 소재를 매개로 엄마와 자유롭게 상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의 예이다.

은진 : 엄마, 여기 빨간 끈으로 친구들이 줄넘기를 해.

(책장을 넘기며)

빨간끈을 가지고 이 언니가 바다에 있네.

바다에 빠졌다. 빠졌어.

저 위에 아저씨가 언니를 구해주려고 빨간줄을 당긴다 당겨.

언니 구해줘서 결혼하려고 하나보다. 하하하.

은진 : 음...이거 빨간 끈이 이만큼 기~니까 우리 아파트 묶어서 이사 가자. 여기 그림처럼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날아서 우주로 이사 가

서. 음...외계인하고 친구할까?

은진 : 응? 안 무서울까?

엄마 : 무섭기는. 친구는 다 좋은 거야.

아- 외계인하고 친구해서 우주선도 타봐야지!

〈빨간끈, 관찰. 2007. 5. 19〉

은진이는 책의 소재인 “빨간 끈”에 대하여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을 “언니 구해줘서 결혼하려나보다” “우주로 이사 가면 외계인하고 친구할까?” 라고 상상하면서 책을 읽어내려 가고 있었다. 책의 그림에 대해 설명해주는 글이 없기 때문에 유아가 나름대로 책의 내용을 벗어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 중에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기’에 관련된 면담의 내용이다.

"책에 글이 없으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보여지는 그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그림에 보이지도 않는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림이 어딴어?' 라고 했더니 '상상이지, 상상' 이러면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림을 연결시켜 상상이 가능한가 봐요. 신기하죠?"

〈은진이 엄마, 면담. 2007. 10. 15〉

이와 같이 유아는 책의 소재를 매개로 상상을 확장해가면서 글이 없는 그림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책에 보여 지지 않는 것들도 상상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글이 있는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유형

어머니와 유아들은 글이 있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글자로 써 있는 이야기 줄거리에 관심을 가지며, 어머니는 책의 내용을 유아나 유아의 경험과 연결시켜보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며, 책의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책 읽기 활동 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 보여지는 상호작용의 유형은 책의 줄거리 예측해보기, 유아의 경험과 관련짓기,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로 범주화하였다.

1) 책의 줄거리 예측해보기

유아는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이 전개되는 순서에 의한 줄거리를 예측하고 궁금해 하면서 책을 읽어나갔다. 어머니는 다음에 전개되어질 상황에 대해 유아가 예측해본 생각을 말하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유아가 책을 읽다가 결말을 예측해보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의 예이다.

가현 : 엄마, 왜 토끼가 왜 혼자 있어?

엄마 : 아까 책 앞에 집안에 아무도 없고 토끼만 있다고 했잖아.

지금은 토끼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멍하니 있는데

조금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현 : 음...밖으로 나왔을까? 집에서 놀았을 것 같아.

**토끼는 이집 아주머니 화장대에 올라가 재미있게 생긴
화장품을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털이 하얀 토끼는
늘 화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현 : 엄마! 아무도 없다고 화장하다가 이따 사람이 집에 올텐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엄마 : 이번에는 토끼가 옷 까지 꺼내 입었네.

가현 : 엄마 이거 맨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토끼가 사람들에게 혼나? 응?

엄마 : 글썄.

가현 : 알려줘. 아니, 내가 볼게. 책 쭉봐. 뒤에 어떻게 되나 보게.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났을까, 관찰. 2007. 6. 30)

가현이와 가현이 엄마는 책의 내용이 전개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조금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가현이가 다음에 전개될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며 가현이는 “이거 맨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라고 결론에 대한 궁금증을 책의 뒷부분을 스스로 찾아 읽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며 책의 줄거리를 궁금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유아가 책의 줄거리의 결말에 대해 예측하는 상황의 예이다.

(엄마가 책을 읽기 시작한다)

하지만 비틀비틀 대다가

바닥에 부리를 쳐박고 엎어졌습니다.

친구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하하하 우리가 뭐랬어? 아주 작은 오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은진 : 아까부터 처음부터 오리가 계속 넘어지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

고...아프겠다. 우리가 자기도 잘 하는게 있다고 처음부터 계속 계속 얘기하는 데 친구들이 안 놀아주네.

엄마 : 그러게.

은진 : 책을 이만큼이나 읽어서 이야기 끝나 가는데 오리가 계속 비틀거리서 어떻게? 책 끝에 가면 잘 힘내겠지? 아마 다른 친구들이 오리랑 놀아 줄꺼야. 걱정 안 해!

엄마 : 그럴 것 같아?

은진 : 그렇다니까. 원래 책을 읽다가 막 싸우다가도 다 끝에 가면 다른 책들도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끝나니까 애네도 그럴꺼야. 그치? 그럴 꺼야.

〈꿈꾸는 작은오리. 관찰. 2007. 7. 25〉

은진이는 책의 내용이 전개되는 줄거리의 흐름을 파악하고 결론에 대해 예측하면서 책을 읽어가고 있었다. 책장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결론은 항상 해피엔딩 이라고 예측하면서 주인공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걱정 안해!” “잘 될꺼야!”라고 단정 짓고 있었다.

2) 유아의 경험과 관련짓기

어머니는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 기억의 회상을 격려하고 그림책 속의 등장인물과 함께 반응을 하는 방법으로 그림책 속의 주인공 및 등장인물과 유아의 경험을 연결시켜보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을 해나갔다.

다음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책의 이야기와 자신을 연결시켜보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의 예이다.

(엄마가 책을 읽기 시작한다)

메뚜기 한 마리가 들풀 이파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밥으로 이파리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했죠. “메뚜기야, 나하고 놀래?”

내가 메뚜기를 붙잡으려고 하자, 메뚜기는 툭툭 튀어 날아갑니다.

엄마 : 성훈아, 메뚜기 본 적 있지?

성훈 : 음...메뚜기...아! 한강에서 봤다. 메뚜기보고 뛰다가 넘어졌잖아.

엄마 : 만약에 성훈이라면 메뚜기하고 놀아줄꺼야?

성훈 : 그럼. 물론이지. 내가 곤충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 친구도 좀 있다가 메뚜기랑 놀아줄꺼야.

애도 나처럼 동물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나랑 다른 것도 있다.

엄마 : 뭔데?

성훈 : 친구들은 나를 다 좋아하는데 막막 나한테 오는데

애는 메뚜기가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

<나랑같이놀자, 관찰. 2007. 7. 15>

엄마는 성훈이에게 메뚜기를 봤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질문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이야기에 접근하게 하였고, “만약에 너라면...” 이라고 물어보면서 성훈이가 책의 상황과 자신을 연관시키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또한 성훈이는 “애도 나처럼...” 이라고 가정하고 자신과 같거나 다른 점을 이야기 하면서 등장인물과 자신을 연결시켜 비교해보기도 하였다.

다음은 유아와 어머니가 그들의 경험을 떠올리며 책을 읽어가는 상황의 예이다.

(가현엄마가 책 읽기를 시작한다.)

엄마 : 가현아, 가현이도 엄마랑 시작간 적 있지?

여기 아영이라는 친구도 시장에 가나보다.

아영아 엄마랑 시장갈까?

정말이요? 나도 아빠 선물 살래요.

그럼 이리와서 계획을 세워보렴

가현: "엄마 계획이 뭔데?"

엄마: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정리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지"

가현: "순서는 뭔데?"

엄마: "해야 할 일들을 1,2,3,4...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야"

가현: 아. 엄마가 옛날에 슈퍼 갈 때 적었잖아. 기억나?

엄마가 안 잊어 먹으려고 적어가는 거라고 했잖아!

엄마: 그렇지! 그거 적을 때 1,2,3,4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었다. 그치?

엄마 : 너가 아영이라면 가현이도 사야할 것들을 적어서 갔을까?

가현 : 그럼요. 히히히. 재미겠다.

엄마! 우리 살 거 적어가지고 슈퍼가자. 내가 1,2,3. 이렇게 적을테니깐

엄마가 살 것들 불러줘.

<얼마예요, 관찰. 2007. 5. 30>

가현이 엄마는 “엄마랑 시작에 간 적 있지?”라고 경험을 떠올리는 질문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였다. 설명위주로 읽어나가다가 가현이가 먼저 “엄마가 예전에 그랬었잖아”라고 엄마와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 내 책을 흥미롭게 읽어내려 갔다.

다음은 글이 있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면담의 내용이다.

"저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기억을 자극하며 읽어줘요. 그러면 책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생각나도록 어떤 말을 던지면 아이는 자기 경험을 막 얘기하다가 책 속의 상황이 자기 상황인 것처럼 자기랑 연관지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암튼,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저도 책 읽는 시간이 즐거워져요."

<성훈이엄마, 면담. 2007. 10. 29>

"글이 있는 그림책을 입을 때 아이는 책의 줄거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와 함께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가 책의 결론부터 궁금해 할 때가 있어요."

<가현이엄마, 면담. 2007. 10. 29>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글이 있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경험을 회상하게 하거나 줄거리의 이해에 초점을 두는데 그런 상호작용의 반복으로 아이는 경험과 자신의 상황을 연관시키기도 하고 책의 결말을 예측하기도 하는 책 읽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어머니는 유아와 책을 읽으면서 주로 그림책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생각하도록 하고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다음은 어머니가 책의 줄거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질문을 하고 유아는 대답하면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상호작용의 예이다.

엄마 : 이 책 속에 누가누가 나오는거야?
상현 : (책을 뒤지며) 고슴도치, 사자, 큰 부리새, 카멜레온...
엄마 :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주인공이 누구였던거 같아?
상현 : 음...동물들 다! 애가 애를 만나서 또 만나구 또 만나구
엄마 : 그래, 정말 많은 동물 친구들이 한명씩 나오면서 친구하자고 하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어? 그림책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지?
상현 : (책을 막 뒤로 넘겨보더니)
동물친구들이 다 음..모두모두 친구하기로 했어.

〈나랑같이놀자, 관찰. 2007. 7. 5〉

상현이 엄마는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의 주제나 앞, 뒤 상황에 대해 “어떻게 끝이 났지?” “누가 주인공이었던 거 같아?”라고 질문하면서 상현이가 줄거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다음은 어머니와 유아가 책 읽기 활동을 끝내고 어머니가 유아에게 책의 내용을 설명해보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의 예이다.

엄마, 가현 :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끝!
 엄마 : 여기 친구 마들린느가 하루종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 나?
 가현 : 마들린느가 아파서 막 울었지. 막 놀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의사한테 갔는데 친구들이 엉엉 울었지.
 엄마 : 맞아. 친구들이 마들린느가 많이 아플까봐 걱정하면서 울었지?
 그래서 마들린느가 어떻게 됐어? 금방 나아졌어?
 가현 : 아니아니.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병원에 놀러갔는데..
 엄마 : 그랬어?
 가현 : 응. 친구들이 병원에 가서 막 놀다가
 마들린느가 수술한 수술자국보고 놀래가지고. 또 울고.
 엄마 :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가현 : 친구들이 자기들도 수술해달라고 막 울었어.

〈씩씩한 마들린느, 관찰. 2007. 6. 30〉

가현이 엄마는 책을 다 읽은 후에 가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라고 물으며 책의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유도하는 식의 상호작용을 진행하였다. 그런 방법으로 가현이는 자신이 이해한 것을 엄마에게 얘기하였고 엄마는 “맞아. 그렇지!” “그래서?”라고 맞장구치며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었다.

다음은 유아가 책의 내용에 대해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어가는 상황의 예이다.

(엄마가 책을 읽기 시작한다)
 더플은 아주아주 작은 오리에요.
 그래서 늘 친구들이 더플을 놀렸답니다.

은진 : 왜? 친구들이 왜 놀리는데?
 엄마 : 너무 작아서 그런가봐.

은진 : 작아도 놀리면 안 되잖아.
 은진 : 여기 오리가 뭐하고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서있어?
 엄마 : 물총새가 물고기 잡아먹는 거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은진 : 인사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여기 혼자 왔나? 왜 혼자 왔지?
 엄마 : 오리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나 돌아다니는 거야.
 은진 : 어디? 어디를 돌아다니는 데?
 엄마 : 너무 작은 오리라서 친구들이 놀리니까 친구들한테 자기도 무언
 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나봐.
 은진 : 엄마, 이것봐봐. (구멍에 작은 새끼 오리가 빠진 걸 보고)
 어떻게 여기로 들어갔지? 애가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구해줘야 되겠다.
 엄마 : 그래,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해주지?
 (엄마와 유아는 책의 내용을 이리저리 살핀다)
 <꿈꾸는 작은 오리, 관찰. 2007. 5. 21>

은진이가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내내 “왜?” “왜 가만히 서있어?” “애가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엄마는 대답을 하며 책 읽기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책의 내용의 이해를 위해 질문하고 답을 하는 형식의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유아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다음은 어머니와 아이가 글이 있는 그림책 읽기 활동 시 많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면담의 내용이다.

"책을 읽어줄 때 저는 아이에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책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가현이엄마, 면담. 2007. 10. 29>

"저는 책을 다 읽고 난후 책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책의 줄거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면 책을 읽은 감흥도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어떤 책이던 아이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면 그게 보람된 일이니까요."

<은진이엄마, 면담. 2007. 10. 15>

이와 같이 어머니와 유아가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 상호작용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유아와 함께 책 속의 주제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새로운 책 읽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유형

어머니들은 유아가 새로운 책을 접하면서 그것이 주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유아들은 책의 외형적인 요소에 관심을 보이거나 유아에게 흥미있는 요소에만 반응하였으며 어머니들도 글의 줄거리에 대한 상호작용이 아닌 단어나 어휘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책의 내용의 이해에만 목적을 두는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 책을 읽을 때는 다른 책들 보다 유아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어머니가 책 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 새로운 책 읽기 상호작용의 유형은 책의 외형적인 요소에 관심보이기, 어휘에 관한 질문하기, 흥미있는 요소에만 반응하기, 경험과 관련지어 흥미유도하기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1) 책의 외형적인 요소(책의 표지, 모양, 삽화)에 관심보이기

어머니가 유아에게 새로운 책을 보여주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요소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유아는 책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다른 책에 비해 탐색하는 상호작용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다음은 책의 표지나 모양, 삽화의 독특한 요소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 하며 책 읽기 활동을 하는 상황의 예이다.

엄마 : 가현아, 이 책 좀 봐. 책이 좀 크다. 그치?

가현 : 어? 책 제목을 크레파스로 썼다. 알록달록 이쁘다.

이거 그림 좀 봐. 색칠을 엉망진창.(하며 크게 웃는다)

애 머리랑 색깔 봐. 하하하.

엄마 : (책을 읽기 시작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렇게 우리 셋은
안녕 빠이빠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장난을 치곤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엌에 있으면,
나는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툭 툭 툭 두드린 다음 얼른 숨어요.

가현 : (색깔이 다른 글자를 가리키며) 엄마! 이거는 글자 색깔이 달라.

엄마 : 어떤 글자가 색깔이 다르지? 가현이가 읽어볼까?

가현 : 안녕 빠이빠이 창문은 하늘색이고, 툭툭툭은 주황색이야.

<안녕 빠이빠이 창문, 관찰. 2007. 6. 8>

가현이는 책의 표지에 ‘안녕, 빠이빠이 창문’이라고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쓰여진 제목을 보고 “어? 크레파스로 썼네?”라고 자신이 봐왔던 책들과 다른 독특한 요소에 관심을 보였다. 가현이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내내 책 속의 삽화에 흥미를 보이면서 여기는 그림이 이렇다, 또 색깔은 어떻다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며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표지가 선물 포장처럼 큰 리본의 그림의 모양을 한 책을 읽으면서 유아가 책의 외형적인 요소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이다.

(엄마가 책을 들고 온다. 새로운 책의 표지를 본 은진이가 책을 뺏으며)

가현 : 엄마, 책이 꼭 선물 포장처럼 생겼다. 이거 봐봐. 리본도 있고.

엄마 : 자. 우리 선물 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나 한번 볼까?

(첫 페이지를 넘기자 리본이 풀리고 포장지가 펼쳐진 책의 그림이 나온다)

가현 : 리본이 풀렸다. 선물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엄마가 조심스레 펼치면서 책을 읽어 나간다)

데이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데이지가 하얗다는 거야.

데이지는 한 가운데가 노랗고, 희고 가름한 꽃잎이

둘러있고, 벌들이 잉잉대며 날아와 앉고,
데이지 향기는 코를 간질이고, 데이지는 초록 빛
들판에서 자라고, 그리고 언제나 무리지어 피곤하지.

가현 : 엄마! (데이지 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데이지라는 글자는 더 크고, 색깔도 더 진하네.

엄마 : 그림에 데이지가 있으니깐 데이지를 진하게 했나봐.

(뒷장으로 넘기며)

여기도 그림에 비가 있으니깐 비라는 글자가 더 크고 진하게 나와 있다. 그렇지?

〈중요한 사실, 관찰, 2007. 6. 15〉

엄마가 들고 오는 책의 표지를 본 은진이가 “책이 꼭 선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에 관심을 보였다. 가현이와 엄마는 선물포장의 리본을 풀어보듯이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서 읽어갔고 책을 읽던 가현이는 ‘데이지’ 라는 책의 글자의 크기가 다른 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유아가 새로운 책을 엄마와 읽을 때는 책의 내용보다도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책의 외형적 요소들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2) 어휘에 관해 질문하기

새로운 책 읽기의 상호작용은 어머니들이 주도적으로 책을 읽어가는 상황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어머니들은 새로운 책 읽기 활동 시에 유아가 책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책 속의 어휘들에 관해 질문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책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어머니가 책을 읽으면서 유아에게 어휘들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때 보이는 유아의 반응이다.

엄마 : 성훈아. 이 책 좀 보라. 제목이 하얀 눈 환한 눈 이네.

(성훈이가 엄마 곁에 앉는다)

엄마 : 눈이 오면 세상이 환해지지?

상현 :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엄마 : 환해지는 게 뭔지 알아?

상현 : 하얘지는 거.

엄마 : 하얗다는 거랑은 조금 틀리지. 방에 불을 켜면 밝아지지?

그렇게 눈이 오면 세상이 환해진다는 건 눈이 하얗서

그만큼 더 밝아진다는 거야.

상현 : 응.

(엄마가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다)

길들을 덮고, 울타리를 지우네요.

틈새들을 메우고, 웅덩이를 채우네요.

조그맣고 새하얀 수많은 눈송이들.

살며시, 고요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엄마 : 상현아, 울타리가 뭔지 알아?

상현 : 울타리? 음..

엄마 : 울타리는 짐승을 가두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나무나 철근 뭐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틀 같은 거 있잖아.

상현 : 아. 본격 있다!

엄마 : 그러면 웅덩이는 알아? 비 올 때 보면 웅덩이가 생기잖아. 알아?

상현 : 응, 그건 알아. 비 올때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

엄마 : 그러면... 틈새는? 틈새는 무슨 뜻 인지 알아?

상현 : (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곳을 쳐다본다)

<하얀눈, 환한눈, 관찰, 2007. 5. 16>

성훈이엄마가 책의 제목을 읽으니깐 서있던 성훈이가 엄마곁에 와서 앉으면서 책 읽기는 시작되었다. 엄마는 책의 첫줄을 읽다가 상현이가 모름직한 단어를 보고 바로 성훈이에게 뜻을 물어보았지만 성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멍하니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런 성훈이에게 엄마는 책을 계속 읽어내려 가는 내내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 질문하면서 책 읽기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상현이는 끝까지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

숨을 보였다.

다음의 예 역시 엄마가 책을 읽는 중간에 유아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이다.

용은 또다시 숨을 깊이 들이쉬었으나,
이번엔 헛바람만 나왔습니다.
이제 용에게는 달걀 한 알 익힐 만큼의
불씨도 남았지 않았습다.

엄마 : (책을 읽다가 갑자기) 성훈아! 불씨가 뭔지 알아?
성훈 : 음...몰라. 불인가?

용은 훌쩍 날아올라 꼭 몇 십초 만에
세상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용은 몹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 몹시 지친다는게 무슨 뜻일까?
성훈 : (곤란한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더니 책을 덮어버린다)

성훈이엄마 역시 책을 읽어주다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에 대해서는 읽는 것을 중단하고 바로 성훈이에게 질문을 하여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성훈이는 책을 덮어버리는 행동으로 책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가 새로운 책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 어휘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책에 대한 유아의 관심이 멀어지게 하였다.

다음은 새로운 책을 읽어줄 때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면담의 내용이다.

"아이에게 새로운 책을 읽어 줄때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읽어주게만 되니까 아이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지 아닌지. 솔직히 책 속에는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많잖아요. 처음보는 책이라 더 낯설어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걸 다 설명해 줘야 아이가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편이에요."

〈상현이엄마, 면담. 2007. 11. 3〉

"저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이해하고 이야기를 듣는건지가 궁금해서 책 속의 어휘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자주해요. 근데 솔직히 그런다고 아이가 이해하는거 아닌거 같더라고요. 책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도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질문을 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가현이엄마, 면담. 2007. 11. 3〉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새로운 책을 읽어줄 때 책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단어에 관한 질문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질문들이 아이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흥미 있는 요소에만 반응하기

어떤 책이든지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어머니와 책을 읽을 때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처음 보는 책일 경우, 그런 요소들이 없으면 유아는 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어머니는 유아가 책을 낫설어 할 때 좋아하는 등장인물이나 소재로 흥미를 이끌면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다음은 유아가 처음 보는 책인데도 자신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어 책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이다.

엄마 : 성훈아, 여기 책에 성훈이가 좋아하는 공룡이다.

공룡에 관한 이야기인가?

성훈 : 어디? 어디?

엄마 : 여기 공룡이 졸린 눈을 하고 있네.

성훈 : 제목은 종이봉주 공주네? 왜 제목에 공룡은 안나왔지?

엄마 : 글썄. 왜 그랬을까. 그림에는 공룡이 이렇게 큰데.

(신이 나서 성훈이가 스스로 책을 편다)

(엄마가 읽기 시작한다)

어느 날, 무서운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용은 공주의 성을 부수어버리고,
뜨거운 불길을 내뿜어 공주의 옷을 몽땅 태워버렸지요.
그리고 로럴드 왕자를
잡아갔습니다.

성훈 : (크게 웃으며) 으하하. 공주 옷이 다 타버렸다.

공룡 불길을 받아라.

(성훈이가 후우-하고 공룡처럼 불길을 내뿜는 시늉을 한다)

(엄마와 함께 장난치며 다음 페이지로 넘긴다)

(종이봉지공주, 관찰, 2007. 6. 30)

성훈이엄마는 책을 펴면서 성훈이가 처음 보는 책에 보이도록 겉표지의 공룡을 언급하면서 책 읽기를 시작하였다. 성훈이는 책에 공룡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어디?” 라고 흥미를 보였으며 책의 상황을 따라해 보기도 하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보였다. 이 책의 경우는 유아가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 흥미를 보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음 사례도 낯선 책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다가 유아가 좋아하는 요소를 어머니가 언급하자 이내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이다.

엄마 : 은진아! 이것봐! 우리 새책 생겼다. 읽어볼까?

은진 :

엄마 : 지금 안 읽으면 후회할 걸?

이 책에 뭐가 나오냐 하면....

짜잔! 우리 은진이가 좋아하는 돌고래가 나오는데요.

은진 : 정말정말? (하면서 엄마에게로 뛰어온다)

돌고래의 꿈! (엄마에게서 책을 뺏더니 제목을 읽는다)

엄마 : 그것봐, 재밌겠지?

은진 : 돌고래가 얘기인 줄 몰랐잖아. 하하하.

〈돌고래의 꿈, 관찰. 2007. 7. 21〉

은진이는 처음에는 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자신에게 흥미로운 소재를 발견하고는 스스로 책장을 넘겨가며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전에 성훈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아는 처음 보는 책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으면 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경험과 관련지어 흥미유도하기

유아들이 새로운 책에 집중하지 못할 때 어머니들은 그들이 경험을 회상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책에 흥미를 가지게 유도하였다. 이는 또한 책의 내용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돕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다음은 책을 읽으면서 유아의 기억을 자극하여 책 읽기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게 하는 상호작용의 예이다.

마당과 돌담과 골목길
그리고 흥동은 물론 잔디밭과 보도,
그 모든 곳이 아주 보드라운 흰 눈 아래에 묻혔답니다.
눈은 지붕들로 덮었어요. 그리고 골목위에 쌓였습니다.
눈은 겨울나무 가지마다 아주 멋진 눈 꽃송이를
피어나게 했어요. 밤이 되자 얼음처럼 차가운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아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엄마 : 가현아, 우리 겨울에 나무에 눈이 이쁘게 내려서
꽃처럼 된 거 본적 있지?

은진: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며 책을 안는다)

응. 나무에 눈이 내려 쌓여 있으면

그게 눈꽃이라고 했잖아.

엄마 : 그래. 정말 이쁘지? 그리고, 눈이 온 날 밤은 어땠었는지 생각나?

은진 : 환했잖아. 밤인데도 안 깜깜했었어.

엄마 : 그래. 눈이 너무 하아서 밤에도 환했었지.

여기 책에서처럼 가로등 불빛에 반짝거리기도 하고.

은진 : 또 눈오면 좋겠다. 책처럼 우리 집이 눈에 가렸으면 좋겠다.

이 책에 계속 눈 나와? (하며 책을 뒤로 넘겨본다)

<하얀눈 환한눈, 관찰. 2007. 7. 15>

은진이엄마는 책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우리 눈이 꽃처럼 된 거 본적 있지?” 라고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였고 그러자 은진이는 금새 얼굴이 환해지며 책 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책을 뒤로 넘겨보며 눈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책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책의 내용과 자신이 경험했던 기억을 연관시켜 새로운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다음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경험을 회상하게 하여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황의 예이다.

(엄마가 책을 읽어 내려간다)

행복한 사자는 식료품 가게 근처에서 팽송 부인을 보고
다시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팽송 부인은 “어머머머머머...!”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야채가 가득 들어 있던 장바구니를
사자의 얼굴을 향해 냅다 내던졌습니다.

엄마 : 가현아, 생각나?

지난번에 뉴스에서 멧돼지가 울타리 밖으로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기겁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던 거 뉴스에서 봤었지?

가현 : 응. 생각나! 생각나! 사람들이 으악- 하고 난리 났었지.
 (조용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아가 신난 표정으로 대답한다)
 엄마 : 그러니까 여기 펑송 아줌마는 사자니까 진짜 무서웠겠다.
 가현 : 그래그래. 사자니까 훨씬 더 무서웠겠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운 척을 한다)
 여기 아줌마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어머머머머머머머머.....!" (하며 따라한다)
 내가 사자를 보면 어떨까?
 으악, 무서워 (엄마뒤에 숨는척을 한다)

〈도서관에 간 사자, 관찰. 2007. 7. 25〉

가현이 엄마는 책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랬던 거 생각나?” 라고 예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였다. 가현이는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을 엄마에게 설명해주고 그 행동을 따라하면서 엄마 뒤에 숨는 등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가 유아에게 책을 읽으면서 경험을 회상하면서 책에 대한 흥미를 더하고 엄마와 함께 호흡하는 상호작용을 가능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새로운 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면담의 내용이다.

"저는 아이가 새로운 책의 내용을 어려워하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해요. 그러면 집중을 하지 않던 아이가 금새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은진이엄마, 면담. 2007.. 15.〉

"처음보는 책을 읽어줄때는 아이가 책의 표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으면 관심을 보이고 책의 모양도 흔하게 보던게 아니면 이것저것 물어보며 흥미를 보이긴 하는데 정작 책을 읽어줄 때는 집중은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때 경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금방 책의 내용에 대해 흥미를 나타내요."

〈가현이엄마, 면담. 2007. 9. 29〉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유아가 새로운 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유아에게 경험을 떠올리게 하였을 때 유아는 책에 관심을 보일 때가 많았다. 이는 새로운 책에 유아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어머니들은 경험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친숙책 읽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유형

유아는 같은 책을 여러 번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의 전개나 상황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친숙하게 느끼게 된다. 이미 친숙해진 책에서 유아는 스스로 책을 읽어본다든지, 글자에 관심을 보이거나, 책을 읽다가 유아가 먼저 자신의 경험과 책의 이야기를 연관시키고,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는 등의 적극적이고 유아 주도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1) 유아 스스로 책 읽기 시도하기

유아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유아들도 엄마와 함께 책을 읽을 때는 엄마가 읽어 주길 기대하고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친숙한 책을 읽을 때는 스스로 읽어보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유아가 책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읽어주는 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유아가 읽어보려는 시도를 하게 하였다.

다음은 친숙한 책을 읽으면서 유아 스스로 책 읽기를 시도한 상황의 예이다.

(책을 읽던 가현이가 잠시 책상으로 가서 종이를 만지고 있다)

엄마 : 강아지~~~ 똥 !

(가현이가 웃으며 엄마 옆에 앉는다)

엄마 : 돌이네 흰둥이가 똥을 똥어오.

골목길 담 밑 구석 쪽이에요.

(엄마가 읽던 다음을 가현이가 읽는다)

가현 :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하며 엄마를 보고 눈웃음을 친다)

엄마 : (다음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다)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똥 곁에 내려앉아 쿡쿡 쪼면서

(가현이가 책을 또 읽는다)

"똥!똥! 예그, 더러워..."

(천천히 읽지만 똥을 상상하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엄마 : 와- 우리 가현이 책 정말 잘 읽는다.

가현 : 이거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나 진짜 잘 읽지, 잘 읽지?

(하며 엄마랑 눈을 맞추고 웃는다)

<강아지똥, 관찰. 2007. 6. 23>

가현이엄마는 책을 읽던 가현이가 잠시 다른 행동을 하자 책꽂이에 있던 가현이가 좋아하는 “강아지 똥!” 이라는 책을 가져와서 아이가 다시 책에 흥미를 보이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가현이는 책을 펴자마자 엄마가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책의 글을 읽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는 유아가 자신에게 친숙한 책에서는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글을 읽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현이 엄마는 아이의 이런 반응에 흐뭇해하고 유아는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엄마와 눈을 맞추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유아가 자주 읽던 책을 가져와서 책 읽기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은진 : 엄마 나 이거 읽을래.

엄마 : 뭐? 또 구름빵? 다른 거 읽어보자.

은진 : (엄마의 대답도 듣지 않고 책을 펼친다)

엄마 : (책을 다시 덮어 표지를 보며 구! 림! 빵! 하며 제목을 읽는다)

은진 : (책을 뺏으며) 엄마엄마! 내가 읽을래!

엄마 : 정말? 은진이가 읽을 수 있겠어?

은진 : 그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책인데 왜 못 읽겠어? 무슨 소리?

(엄마에게 목에 힘을 주며 큰소리로 이야기 한다)

(더듬더듬 읽지만 환한 얼굴로 책을 읽어 나간다)

(그런 모습에 엄마는 흐뭇해 한다)

〈구름빵. 관찰. 2007. 5. 30〉

은진이가 엄마에게 책을 가져오더니 “이거 읽을래.” 라고 책 읽기를 요청하였다. 엄마는 같은 책만을 고집하는 아이에게 다른 책을 읽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가현이는 들은 척도 안하고 책의 제목을 읽으면서 책 읽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선 “내가 읽을래” 하고 더듬더듬 이지만 스스로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유아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글을 읽어보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어머니가 아이와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면담의 내용이다.

“아이가 나이에 비해 글을 곧잘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책은 도통 혼자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읽어주더라도 가끔씩 혼자 글을 읽으면 좋겠어요.”

〈가현이엄마, 면담. 2007. 11. 15〉

“아이가 같은 책만 읽으려고 고집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놔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훈이엄마, 면담. 2007. 10. 29〉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같은 책을 계속 읽어줘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책을 읽을 때 아이가 스스로 읽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글자에 관심보이기

글을 읽을 줄 있는 유아도 어머니와의 책을 읽을 때 글자에 반응을 보이는 상호

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림이나 등장인물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자신에게 친숙한 책을 읽을 때는 엄마가 읽어주는 문장들 중 자신이 아는 글자가 보이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야기를 해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어머니와 유아가 친숙한 책을 읽으면서 글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의 예이다.

상현 : 돼지책! 돼지책! (책의 제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책을 펼친다)

다음 날 아침, 피곳 씨와 아이들은 손수 아침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또 그 다음 다음날에도

피곳 부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다음 날...

상현 : 다! , 날?

엄마, 이게 다 옆에 있는 글자가 뭐야?

엄마 : 음!

상현 : 맞다맞다, 다! 음! 날! 다! 음! 날!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았었는데, 깜박했네. (다시 글자를 손으로 짚으면서) 그러면 이거는

엄마는...어제..

엄마 : 언제, 언! 제! 라고 읽는 거야.

상현 : 이게 언! 자야? 언?

〈돼지책, 관찰. 2007. 6. 23〉

상현이가 책의 제목을 크게 이야기 하며 가져와서는 엄마에게 책 읽기를 요청하였다. 엄마가 책의 글을 읽는 것을 듣던 상현이가 갑자기 다! 하면서 글자에 관심을 보이며 계속 글자를 읽어보려고 시도하였고 엄마는 아이가 글자를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발음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있었다.

다음은 유아가 친숙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글을 써보는 상황의 예이다.

맛있게 익은 구름빵들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구름빵을 먹은 우리도 두둥실 떠올랐어요.

은진: 빵! 엄마, 나 구름빵 쓸 수 있다?

엄마: 정말? 어떻게?

은진: 내가 이 책 보고 연습했다고.

내가 이 책을 몇 번을 읽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엄마: 우와- 대단한데? 안보고 쓸 줄 알아?

은진: (종이와 연필을 가져와서 구! 림! 빵!을 써본다)

엄마: 우와- 언제 연습했어? 기특하네.

은진: 구름빵 책을 좋아하려면 이정도야, 뭐!(하며 어깨를 으쓱한다).

이 책에 있는 글자 따라 쓰는 거 얼마나 재밌는데.

〈구름빵, 관찰. 2007. 7. 5〉

엄마가 들려주는 책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은진이가 “엄마! 나 구름빵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써보기를 자청한다. 은진이는 “구름빵 책을 좋아하려면 이정도야” 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이 책에 있는 글자 따라 쓰는거..” 라며 스스로 글씨쓰기를 시도하였다. 이는 유아가 여러 번 읽은 책에 대해서는 글자에 익숙해져 써보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아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책의 내용 연관시키기

유아는 친숙한 책을 읽을 때 스스로 책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연관시켜 보며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유아는 수동적으로 책 읽기에 임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경험을 이야기 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공하면서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갔다.

다음은 유아가 스스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책의 내용과 자신의 겪었던 상황을 연관시켜 책을 읽어가는 상황의 예이다.

상현 : 엄마, 사자! 사자! 이거 또 입을래.
상현 : 도서관에 간 사자 (제목을 읽는다)

“도서관에서는 뛰면 안됩니다”
“하지만 사자가 온 걸요. 도서관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규칙을 어겼나요?”

상현 : 엄마, 나 도서관에서 장난치다가 아저씨한테 혼났었지.
 그 때, 진짜 무서웠었어.
엄마 : 왜 혼났었지?
상현 : 뛰면서 큰소리로 얘기하면서 막 뛰다가 혼났지.
 여기 사자는 사잔데도 규칙을 잘 지키니까 처음에는 안 혼난다.
 알어? 그니까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나도 이제 그래야지.
상현 : 엄마, 우리 동물원에 갔을 때 사자가 갑자기 소리 내서 엄청 놀랐
 었지?
엄마 : 맞아. 그 때 엄마도 진짜 놀랐어.
상현 : 사자 입이 이~만한데. 으구, 무서워.
 이 아저씨도 엄청 놀랐겠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모르니? 넌 규칙을 어겼어”
“관장님, 메리웨더 관장님! 사자가 규칙을 어겼어요.
사자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상현 : 에이, 그렇다고 이렇게 이르면 안되는데. 그치 엄마?
 희준이는 내가 뭐만하면 맨날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그래.
 이르는 거 나쁜 건데...
 아저씨! 그렇게 이르면 안 되요! 나쁜 아저씨!

<도서관에 간 사자, 관찰. 2007. 6. 30>

상현이가 책의 읽으면서 엄마 무릎에 앉아서 책 읽기를 요청하여 책을 읽어내려
가다가 “엄마, 나 그랬었지.” 라고 책의 상황과 같은 곳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엄마에게 전달하며 책을 읽어내려 갔다. 또한 “에이, 이러면 안되는데..” “엄마, 이르

는거 나쁜건데, 희준인 맨날 이룬다고 그래.” 식으로 책의 내용과 자신의 상황을 연결해보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다음은 ‘돼지책’을 읽으면서 유아가 책의 상황과 그것을 자신의 상황을 연관시키는 사례이다.

(엄마가 책을 읽어내려 간다)

“엄마, 빨리 밥줘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밥줘.” 피곳씨도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피곳씨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고.....

은진: 엄마! 예전에 엄마가 어디가서 아빠랑 나랑 있을 때

이거처럼 우리집 디게 지저분했었어. 히히. 돼지우리처럼.

그래서 여기도 꼭 돼지우리 같아. 엄마가 어디 갔잖아.

엄마, 우리는 지저분하게 안할게! 어디 가지마.

밥 달라고 말도 소리지르면 안되겠다.

<돼지책, 관찰. 2007. 7. 15>

은진은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엄마, 예전에..” “우리는 지저분하게 안할게 어디 가지 마” “밥 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을게” 라고 책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연관짓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책의 이야기에 이미 친숙해진 유아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의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하며 책 읽기 활동을 전개시켜 나갔다.

4) 유아가 책의 즐거리 이야기하기

여러 번 같은 책을 읽으면서 즐거리를 파악하게 된 유아가 엄마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새로운 책을 읽을 때 듣기만 하던 유아도 친숙한 책에서는 책의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등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다음은 유아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구름빵’이라는 책의 줄거리를 엄마에게 전달하는 경우의 예이다.

(유아가 ‘구름빵’을 가져오더니 책을 펼치다가 덮고 책의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은진 : 엄마, 이 책은 비가 오는날 엄마가 빵을 만든거야.
아빠가 빨리 가느라고 빵을 못 먹은 거야.
그래서 빵이 다 됐는데 먹으려고 하니깐
갑자기 막 하늘로 올라 가는거야.

엄마 : 왜- 어떻게 하늘로 갔을까?

은진 : 근데근데 여기 엄마랑 친구랑 빵을 먹었더니
막 같이 하늘로 올라갔어.

(유아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찾아서 엄마를 보여준다)

은진 : 빵이 날아간다. 우아~ 엄마도 잡아~

(빵을 잡으려고 책 속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이 팔을 벌리고
허공에 빵을 잡는 흉내를 낸다)

은진 : 이제 구름빵을 아빠한테 가져다 줄거야.

하늘을 날아서 아빠한테 구름빵을 주면 아빠랑 나랑, 우아~ 동실

동실. 엄마! 나 우산 꺼내와도 되지?

그래야 아빠한테 갈 수 있는거야. 하하하.

(그림속의 장면들을 따라하며 크게 웃는다)

<구름빵, 관찰. 2007. 7. 15>

은진이는 책을 읽으려다 말고 책의 줄거리를 엄마에게 서스름 없이 이야기 해주면서 책 읽기 활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모두 책의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보고 싶어 하는 유아의 심리를 알 수 있다.

다음은 유아가 책을 읽기 전에 엄마에게 ‘안돼, 데이빗’의 줄거리를 이야기해주는 이해시키려는 상황의 예이다.

(책을 들고오는 성훈이가 분주하다)

성훈 : 데이빗 또 혼난다. 난리났다 난리났어! 하하!

엄마 : 왜? 데이빗이 화난 이야기야?

성훈 : 엄마,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엄마 : 글썄...?

성훈 : 데이빗 엄마한테 혼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

엄마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그릇 만지고, 무슨 말 인지 알아? 몰라?

엄마 :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고?

성훈 : 맞아. 밖에서 놀다가 더러운 신발로 집으로 막 들어오고.

또... 음식 가지고 장난도 치고,

데이빗 엄마는 "안돼! 안돼! 안돼!" 하고.

엄마 : 데이빗이 정말 말썽꾸러기네. 우리 성훈이는?

성훈 : 나? 에이..나는 애처럼은 안 그러지. 아니..안 그럴꺼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엄마 힘들지... 힘들잖아.

엄마 : 그렇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속상하지요.

성훈 : 나, 엄마 말 잘 들을 꺼야.

데이빗! 그만 말썹쳐! 엄마가 속상하잖아.

엄마들은 다 아가들을 사랑한다고!

<안돼, 데이빗, 관찰. 2007. 6. 15>

성훈이가 엄마에게 “데이빗, 난리났어” 라고 엄마가 책의 줄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들고 와서는 엄마가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러고는 시큰둥한 엄마의 반응에 자신의 엄마에게 책의 줄거리를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른 책을 읽을 때는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성훈이가 자신에게 친숙한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책 읽기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의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이 모두 진행된 후,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이다.

"아이는 엄마처럼 책도 친숙한 게 좋은데요. 엄마랑 아이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엄마를 좋아하는 것처럼 책도 그래요. 자꾸 같은 책만 읽으려고 하면 제가 말렸었는데 아이가 다른 확장된 활동을 하려면 책의 내용의 이해가 먼저라는 거 알아서 이제 그냥 놔둬야겠어요. 여러 번 읽어서 책에 익숙해지면 그게 좋은데요."

<성훈이엄마, 면담. 2007. 11. 15>

"솔직히 저는 이제껏 아이에게 책을 사줄 때 교육적인거 위주로 사줬어요. 책에 있는 하나의 정보라도 아이에게 전하고 싶어서요. 근데 아이는 그게 아닌가봐요. 책에서 정보나 단어를 습득하는 거 보다 중요한건 아이의 흥미인거 같아요. 아무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책이라도 해도 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하면 그건 아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가현이엄마, 면담. 2007. 11. 15>

"글이없는 그림책은 제가 읽어주기가 힘들어서 별로 사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 읽어보니 글이있는 책과는 다른 흥미를 아이가 느끼는 거 같아요.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일지 몰랐거든요."

<성훈이엄마, 면담. 2007. 11. 15>

"저는 책을 읽어줄 때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서 읽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아인 책 읽기에 수동적인 편이어서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면 그냥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거 싫은가봐요. 우리 아이가 그냥 건성으로 대답만 한거 같아요. 책에 대한 흥미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큰일나죠."

<은진이엄마, 면담. 2007. 11. 15>

"저는 항상 아이가 책을 혼자 읽길 원했어요. 근데 잘 안됐는데 아이가 책에 친숙해야 글을 읽을 시도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책을 사주는 것 보다 하나의 책을 여러 번 읽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게 맞는거 같아요. 그러면 아이는 적극적으로 책을 대하게 되니까요."

<상현이엄마, 면담. 2007. 11. 15>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이 없는 그림책에 읽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의 유형은 책 속의 그림에 대해 설명유도하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추론하여 이야기 구성하기,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기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유아에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글이 없는 그림책에서는 그림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아의 생각을 듣거나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하였다는 김재순(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등장인물의 내적상태를 추론해보거나 유아는 스스로 그림을 보고 의미를 구성해나가면서 책 읽기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는 유아가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등장인물의 내적상태에 대한 추론을 한다는 한유진(2003)연구결과와 그림만으로 책 속의 이야기를 꾸미려 하고 그것을 어머니에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채유진(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아가 글을 읽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구성해가기 때문에 글 없는 그림책을 읽는 것은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언어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는 그림책의 그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림 속 상황을 확장하여 상상의 이야기를 꾸미기도 하였다. 이는 유아의 글 없는 그림책이 확장적 사고를 돕고 이야기의 표현력을 증대시킨다는 한유진(2003)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는 글이 없는 그림책을 볼 때 삽화의 구성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글이 없는 그림책은 단지 이미지만으로 구성되어 이야기 거리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유아가 이야기를 구성하고 만들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글자에 의해 맞고 틀림이 없이 유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대로 표현하면 되므로 유아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표현해보게 하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과

정 속에서 유아가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좋은 감정 및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글이 있는 읽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의 유형은 책의 줄거리 예측해보기, 유아의 경험과 관련짓기,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로 나타났다. 유아는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전개순서에 따라 결말을 예측해가고 궁금해 하면서 책 읽기 활동을 하였다. 어머니는 이야기의 전개상황을 예측해보도록 격려하면서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였다. 또한 유아는 글이 있는 그림책을 읽을 때 생활 속에 겪었던 일을 책의 내용과 연관지으며 책 읽기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책 읽기 활동 시 사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상호작용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임혜련(2006)은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어머니는 유아와 책을 읽으면서 줄거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질문을 많이 하면 유아의 발화가 많았다는 김재순(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어머니는 유아와 글이 있는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책의 내용이 전해주는 다양한 세계를 경험을 통하여 유아가 이해하도록 돕고, 유아 자신을 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해결력을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는 글이 있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책의 줄거리를 예측하기도 하고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유아와 글이 있는 그림책을 읽을 때 글자에 구애받지 않고 책 속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이 유아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그림책을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책 읽기 상황에서의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유형은 책의 외형적인 요소에 관심보이기, 어휘에 관한 질문하기, 흥미있는 요소에만 반응하기, 경험과 관련지어 흥미 유도하기로 나타났다. 유아는 새로운 책을 대할 때 책의 내용보다 외형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는 유아가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할 때 표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김명진(2002)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어머니들이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유아의 이해를 돕거나 어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질문과 설명을 하였는데 이는 낯선책인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의 이해를 돕는 명명하기, 명료하기, 설명하기 등이 더 요구되었다는 홍혜경(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어머니가 자주 어휘나 단어의 뜻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유아로 하여금 책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연스러운 책 읽기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어머니가 책 읽기 활동을 할 때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해주는 것이 유아에게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어머니는 유아에게 경험을 회상하게 하면서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책의 이해를 돕고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유아는 외형적으로 독특한 요소나 내용에 흥미있는 요소가 있지 않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책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유아에게는 흥미를 고려하여 책을 선택해야 책에 대한 흥미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어머니는 유아가 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회상하는 상호작용으로 흥미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책을 읽을 때 뿐 아니라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유아와 책 읽기 활동을 할 때 유아의 경험을 책과 관련짓는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써 책에 대한 유아의 집중도와 이해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은 새로운 책에 대해 유아가 질문을 하였을 때 바로 대답해주지 못하고 얼버무릴 때 유아는 책을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어머니가 그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유아의 흥미를 도울 수 있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친숙한 책을 읽을 때 어머니와 유아의 책 읽기 상호작용의 유형은 유아 스스로 책 읽기 시도하기, 글자에 관심보이기, 유아 스스로 자신과 책의 내용 연관시키기, 유아가 책의 줄거리 이야기하기로 나타났다. 친숙한 책은 유아가 이미 여러 번 읽었거나 좋아하는 책이므로 어머니와 유아는 친숙한 책을 읽을 때 다른 책들보다 유아 주도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친숙한 책일 경우 유아 참여가 많다는 홍혜경(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유아도 어머니와의 책을 읽을 때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서 책 읽기 활동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친숙한 책을 읽을 때는 스스

로 글을 읽어본다든지 책의 글자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유아가 책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는 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알고 있는 내용과 글자를 대응시키면서 책을 읽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유아가 이미 책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과 글과의 대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친숙한 책은 유아의 글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자연스러운 문해발달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또한 유아는 친숙한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을 연관시켜 이야기하거나 책의 줄거리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이는 유아가 책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책의 내용을 관련지어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유아는 자신에게 친숙한 책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책 읽기 활동을 전개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어 유아가 상호작용을 더 유도하게 된다는 김명숙(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친숙한 책을 읽을 때는 유아가 이미 책의 외형적인 요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흥미를 보였는데 이는 친숙한 책일 경우 언어기술을 요하는 유추하기, 연관짓기 등의 발화가 증가한다는 홍혜경(1998)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유아는 자신에게 친숙한 책에서는 스스로 말하기 활동이나 쓰기활동 등 유아의 언어능력에 필요한 부분들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새로운 책이라도 어머니가 여러 번 읽어주어 유아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주면 책을 통해 유아의 언어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유아는 어떤 책이던지 자신에게 친숙해지면 책을 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해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유아를 책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유아가 흥미를 가질만한 책을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여러 번 접하게 하여 책 읽기 활동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친숙한 책이 가져다주는 장점들을 살려 그것을 활용한 유아의 책에 대한 참여와 문해발달을 돕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유아만 어머니와 책 읽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의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면 영아를 관찰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글의 유무와 책의 친숙도에 따른 상호작용을 분석하려고 하였으므로 책의 종류에 따른 제한된 조건에서 관찰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어머니와 유아가 책 읽기 활동을 할 때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아정 (1994).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및 가정의 문해 환경과 유아 읽기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성애 (1992). 유아의 가정환경과 읽기능력에 관한 연구 - 가정의 언어환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세경 (1995).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언어적 상호작용 교육이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방법과 유아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김금주 (2000).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1995). 이야기책 듣기가 유아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진 (2002).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의 또래 유아간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선 (1997). 소그룹 그림책 읽기에서 그림책에 대한 5세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아 (1997). 책읽기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읽기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실 (1991). 상황적 읽기 교수 전략이 유아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애 (1998). 취침 전 책 읽어주기 활동과 어머니-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해발달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준, 송미선 (1997). 글자 없는 그림책을 이용한 유아의 의미구성 평가활동 사정. 아동학회지, 18(2), 19-32.
- 김혜경 (2001).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특성 및 관계,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어머니의 권력인식에 따른 상호작용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성혜 (2000).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인지 · 언어발달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정 (1999). 책 읽어주기 훈련이 읽기 상황에서의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배식 (1993). 언어발달과 지도. 서울: 학문사.
- 박선혜 (1994). 그림책 읽기를 통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훈련효과가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정 (2002). 어머니-유아간 협력과제시 나타난 어머니의 교수전략과 유아의 혼잣말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아 (1999).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소현아 (1999). 저소득층 어머니-아동간 책읽기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경진 (200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아동간 책 읽기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진희 (2000).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교사의 언어적 유형에 따른 영아의 반응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혜경 (1999). 어머니와 유아의 책읽기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발달 촉진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우 (1998). 좋은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 글 없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정보.
-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 유아도서 추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양서원.
- 이두현 (1998). 동화에 대한 교사의 질문유형이 유아의 이야기 꾸미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유진 (1998). 가정에서의 어머니-영아간 책 읽기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진 (2003). 글 없는 그림책과 이야기 그림책의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 및 유형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3), 17-30.
- Cazden, C. B. (1981). Languag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hington, DC: NAEYC.
- Clay, M. M. (1972). Reading: The patterning of complex behavior. Auckland, New Zealand: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Cornell, E. H., Senechal, M., & Broda, L. S. (1988). Recall of picture books by 3-year-old children: Testing and repetition effects in

- joint reading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537-542.
- Crain-Thoreson C., & Dale, P. S. (1992). Do early talkers become early readers? linguistic precocity, preschool language, and emergent liter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421-429.
- D'Angelo, K. (1981). Wordless picture books and the young language-disabled child.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14, 34-37.
- DeBaryshe, D. B. (1993). Joint picture-book reading correlates of early oral language skill. *Journal of Child Language*, 20, 455-461.
- DeLoach, J. S. (1984). What's this? Maternal questions in joint picture book reading with toddl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51 176).
- DeLoache, J., & DeMendoza, O. (1987). Joint picture book interaction of mothers and 1-year-old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111-123.
- DeTemple, J. M., & Beals, D. E. (1991). Family talk: sources of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decontextualized language skill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6, 11-29.
- Dickinson D. K. (1994). Introduction: Directions in Literacy theory and intervention programs. In D. K. Dickinson(Ed.), *Bridges to literacy* (pp.1-15). Oxford: Blackwell.
- Dickson, D., & Smith, M. (1994). Long-term effects of preschool teachers' book readings on low-income children's vocabulary and story comprehensi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29, 105-122.
- Doake, D. (1986). *Book Experience and Emergent Reading in Preschool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 Donachy, W. (1976). Parent participation in preschoo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6, 31-39.
- Durkin, D. (1986). *Children Who Read Early*. N.Y.: Teachers College

Press.

- Elley, W. B. (1989). Vocabulary acquisition from listening to stor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4, 175-187.
- Fagerlie, A. M. (1975). Using wordless picture book with children. *Elementary English*, 52(1), 92-94.
- Falco, F. L. (1986). *Social Linguistic Determinants of Language Development and Delay*. Doctoral Dissertation.
- Flood, J. E. (1977). Parental styles in reading episodes with young children. *The Reading Teacher*, 30, 864-867.
- Frosch, C.A., Cox, M. J., & Goldman, B. D. (2001). Infant-Parent Attachment and Parental and Child Behavior During Parent-Toddler Storybook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7, 445-474.
- Glazer, J. I. (1981). *Literature for young children*. Columbus, Ohio: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ABSTRACT

An Ethnography Study on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when Reading a Book at Home

Lee, ji eu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at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in accordance with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ext and familiarity of book. It is to help reading activity at home by providing a guideline about interaction of reading between mother and childre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is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ext when reading a picture book?
2. How is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familiarity of book when reading a book?

The research subjects are 4-year-old children (2 male, 2 female) in W kindergarten located in Bundang-gu, Gyeonggi-do, and their mothers. The research period is from May to July 2007. Total 24 times of participating observation, two formal interviews with the mothers, and several informal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participating observation daily record, interview record, video copies, and other documents categorized, organized, and classified.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How is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ext when reading a picture book?

When reading a picture book that has no text, the interactions between mother and children are to induce explanation about pictures in the book, to infer meanings and make a story, and to freely imagine a situation of the picture. Mothers lead the interaction by asking children to explain about the pictures. children made stories by giving a meaning or inferring feelings. Moreover, the infants freely expanded their imaginations using situations or materials in the picture.

When reading a picture book that has some texts, the interactions between mother and children are to predict a summary of the book, to make connection with the children's experience, and to question about story of the book. The children predicted and were curious about stories and situations in the book. The mothers encouraged the infants to feel and recall their memories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their experience and characters in the picture book. Moreover, they questioned about information or situation about theme of the story.

2. How is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familiarity of book when reading a book?

When reading a new picture book, the interactions between mother and children are to show curiosity about external factors of the book, to make questions about vocabulary, to response with only interesting factors, and to induce interest in connection with experience. When the mothers showed a new book to children, many of them showed interest in external factors at first.

Mothers made questions about vocabulary in the book in order to check if the children understood the book. Moreover, the children showed interested in the book only when the book has some interesting factors. When the children cannot give attention to the book, the mothers helped them to be interested in the new book by making them recall their experiences.

When reading a familiar picture book, the interactions between mother and children are to try to read the book by the children, to show interest in the letters, to make connection between the children's experience and story of the book, and to tell about summary of the book. The children tried to read words and showed interest in letters when reading a familiar book. They also could do expanded book reading that they made connection between the story and their experience. When reading a same book for several times, the children showed initiative interaction that they understood story of the book and told it to their mother.